

광주신세계 “주주 배당금 축소 없다”

유스퀘어 양수 등 대규모 투자에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축소 등 우려 자금 마련 방안 다양하게 모색 중

광주신세계가 향후 4년 이내에 수천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과 관련, 주주들이 추가 하락과 배당금 축소 등을 우려하고 나섰다.

28일 개최된 광주신세계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은 유스퀘어 양수에 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되는 데다, 백화점 확장 공사도 예정돼 있는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배당금 축소 우려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신세계는 주주 배당금액을 최대한 기존처럼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하게 드러냈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2층 금호아트홀에서 광주신세계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주총 안건으로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영업 양수도 승인의 건, 사업목적 추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김영천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상정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는데, 주총 종료 이후 일부 주주들이 회사 측에 불안감을 표했다.

이들은 광주신세계 측에 앞으로 광주신세계가 유스퀘어 부지 매입에만 4700억원, 확장 공사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 배당금 축소가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광주신세계 총자산량은 795만 7190주, 이날 기준 주가는 3만900원이다. 주 당 배당금은 2200원, 배당률은 7.03%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평균 배당률이 3%가 안된다는 점에서 광주신세계 주주들은 7%가 넘는 매력적인 배당률에 광주신세계에 투자한 점이 없지 않다.

현재 광주신세계 유보금은 약 2700억원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부지매입과 확장에 필요한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광주신세계는 “광주신세계는 최대한 기

준대로 배당할 방침이다”며 일부 주주들의 불안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터미널 영업양수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주들 피해가 없도록 배당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28일 금고고속으로부터 유스퀘어 문화관과 터미널 부지의 토지·건물, 터미널 사업권을 4700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영업 양수를 공시하고, 지난 13일 금고고속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종 양수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광주신세계는 최종 양수를 마치면 오는 7월 유스퀘어 문화관 폐관을 시작으로 백화점 확장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기존 광주신세계보다 세 배 이상 큰 대형 백화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소품시설뿐만 아니라 갤러리와 오픈형 대형 서점, 옥상 공원, 루프탑 레스토랑, 펍파크 등을 들이고, 입점 브랜드도 현재 530여개에서 두 배 가량 늘어난 100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광주일보 공동기획

투표지 보관·이송 시 경찰 배치 등 보안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걸음 더’

〈4〉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전투표 편

◇사전투표 기간·장소는=사전투표는 선거일(4월10일) 전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타지에 살거나 출장을 간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등 투표 편의가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월5일~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이번 총선에서 광주 96개소, 전남 298개소, 전국 3565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우려 사항=사전투표 후 이중투표 가능성을 우려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이 제시된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 이미지로 저장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한다.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전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을 찍거나 서명해 투표용지 수령 사실을 통상선거인명부에 기록함으로써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사전투표 여부를 기록·출력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 투표 가능성은 없다.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해당 선거인이 사전투표한 일시와 사전투표소가 기록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후 투표지가 선거일 전까지 어디에 보관되는지도 많은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합·봉인하고 참관인·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운반·인계한다.

관의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 관리관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의 사전투표함을 열어 관의 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 숫자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고 우체국에서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1명씩을 지정해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한다. 관의 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하면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구·시·군위원의 참관하에 접수하고 각 선관위에 설치된 관의 사전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까지 각 선관위 청사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해당 장소에는 CCTV, 보안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이 전 선거부터는 시·도선관위에 모니터를 추가 설치, 각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CCTV 영상을 표출하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본격 선거운동 돌입 28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인근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북구갑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정진욱 “호남 정치 복원에 힘 쏟겠다”

민주당 광주 동남갑 후보



정 후보는 이어 “역사의 고비마다 위대한 선택으로 물결기를 바꾼 광주시민께서 이번에도 민주당 지지 바람의 원천이 됐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진욱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남구 진월동 푸른길에서 ‘정진욱 민생 민생 캠프 시민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날 출정식에는 안도길 광주 동남을, 정준호 북구갑 민주당 후보들과 나경식·오경훈·조영표 상임 선대위원장, 임미란·서임석 광주시의원,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 등 사·구위원을 비롯한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진욱 후보는 “광주 동남갑 선거구를 필두로 광주와 수도권, 충청, 부산·울산·경남까지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이제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확실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또 “광주의 민주당 후보들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 이끌고 호남 정치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 및 첨단 기술 보유 기업 유치 등을 통한 남구 경제 활성화와 남구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도입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도시 브랜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다

시, 광주 브랜드 학교 개설 4월 12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시가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 홍보를 위한 ‘광주 브랜드 학교’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더 매력적인 광주 도시 브랜드를 위한 프로젝트 강좌 ‘광주 브랜드 학교’를 열고 수강생 36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신의 기획은 광주가 된다’를 구호(슬로건)로 내건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 시민이 직접 광주에서 겪은 경험과 지역 콘텐츠를 도시 브랜드로 디자인

하고 도시홍보물로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도시 홍보와 도시브랜드 기획 이해 과정 및 실습, 지도(멘토링) 프로그램, 공동연수(워크숍) 등으로 구성됐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7차례 진행된다.

부산 영도와 경북 포항의 도시 브랜드를 주도한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팀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도시 브랜드 디자인 경험과 도시 홍보물 제작 등 현장감 넘치는 노하우를 전달한다.

광주시는 우수 수료생 10명에게 광주시 시정 홍보회사와 홍보물 기획 참여, 교육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 또 7월에는 교

육생들이 직접 제작한 광주 도시 브랜드 결과물로 전시회를 열어 시민의 시선으로 제작된 광주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도시사물디자인 12명 ▲도시언어디자인 12명 ▲도시경험디자인 12명 등 총 36명이다.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광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하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 시민이 직접 광주의 매력과 경험을 도시브랜드로 디자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이야기가 담긴 도시브랜드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도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